
	<h1>보도자료</h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small>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small>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대전(본원): 대외협력실 이종성 042-869-0976 / 이해준 0676 / 손영주 0997 문의: 오픈액세스센터 김혜선 센터장 02-3299-6103 / 김완중 6291 / 이은지 6096		
배포번호 : 2021-46 배포일자 : 2021.11.24.(수)	매수 : 보도자료 3매 (첨부자료 포함)	배포처 : 대외협력실

오픈 사이언스 확산을 위한 건전한 학술활동 방안 찾는다

- KISTI, ‘건전학술활동포럼’ 25일 온라인 개최 -

- 연구자·연구기관·출판사 참여, ‘부실 학술지’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 모색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원장 김재수)은 오는 25일 ‘건전학술활동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오픈 사이언스 시대, 부실 학술출판의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최근 학술 생태계의 이슈로 등장한 ‘부실 학술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건전한 학술출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부실 학술지 : 출판 윤리를 따르지 않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출판되는 학술지를 뜻하는 것으로, 주로 저자가 출판비용(APC)만 지불하면 엄격한 동료심사 없이 논문을 출판해주는 학술지를 의미

부실 학술지 문제는 오픈액세스 패러다임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등장했다. 기존의 학술출판사는 구독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구독료를 받아 운영했으나, 상업 오픈액세스 출판사는 학술지를 무료로 공개하는 대신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논문게재료를 받아 운영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용해 게재료만 내면 논문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게재해주는 부실 학술지가 증가하자, 학술활동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 부실 학술지를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저자와 출판사의 입장이 서로 달라 전 세계적으로 관련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

이다.

※ 오픈액세스(OpenAccess) : 법적·경제적·기술적 장벽 없이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허용하는 열린 학술 생태계로, 2000년대 초반 상업 출판사의 영향력을 연구자에게 되돌리고자 시작됨.

○ 우리나라의 경우, 부실 학술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오픈액세스 선도기관인 KISTI가 2020년부터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 <https://safe.koar.kr/>)’을 운영하고 있다. SAFE는 부실이 의심되는 학술지와 학술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 스스로 부실 학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건전학술활동포럼’에서는 충남대학교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이효빈 교수(부실학술활동의 특징과 연구공동체의 과제), MDPI 출판 연구 부장 Damaris Critchlow(MDPI Open Access - How OA supports rigour and transparency) 그리고 KISTI 오픈액세스센터 AccessON개발팀 김완중 팀장(SAFE 운영 현황 및 개선 계획)이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정은경 교수를 좌장으로 앞선 주제발표자들과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지원센터 김해도 센터장,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박종일 교수,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윤철희 교수,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오세훈 교수 등 학술 커뮤니티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부실 학술지 대응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MDPI(Multidisciplinary Digital Publishing Institute) : 스위스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사로 현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술지(373종, 2021년 11월 기준)를 발간중임.

김재수 KISTI 원장은 “부실 학술지의 급증은 학술출판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연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 학술경쟁력을 저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부실 학술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물을 안전하게 출판하고 건전한 학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전학술활동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KISTI 공식 유튜브를 통해 25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한다.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

건전학술활동포럼 홍보 포스터

건전학술활동포럼

오픈 사이언스 시대, 부실 학술출판의 쟁점과 대응 방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오픈 사이언스 시대, 부실 학술출판의 쟁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건전학술활동포럼을 개최합니다.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본 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1년 11월 25일(목), 14:00 ~17:00

* 건전학술활동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프로그램 |

시간	순서	세부내용
13:30~14:00	등록	참가자 등록 및 입장
14:00~14:15	개회식	개회사 김재수 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축사 윤영찬 의원 (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우일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4:15~14:45	주제발표	부실학술활동의 특징과 연구공동체의 과제 이효빈 교수(충남대학교)
14:45~15:10		MDPI Open Access - How OA supports rigour and transparency Damaris Critchlow (MDPI, Head of Publication Ethics)
15:10~15:40		SAFE 운영 현황 및 개선 계획 김완중 팀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5:40~16:00	휴식	
16:00~17:00	총합토론	좌장 정은경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토론자 김완중 팀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해도 센터장 (한국연구재단)
		박종일 교수 (서울대학교)
		오세훈 교수 (중앙대학교)
윤철희 교수 (서울대학교)		
이효빈 교수 (충남대학교)		
17:00	폐회식	폐회 및 기념촬영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참여방법 |

 **YouTube** 실시간 온라인 중계

 YouTube에서 'KISTI'를 검색하세요 



KISTI 유튜브